

한의학 학위논문 정보서비스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최 환 수 · 남 봉 현
한국한의학연구원

Abstract

An empirical investigation on the information service systems of the theses of Korean medicine

Choi Hwansoo, Nam Bonghyu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Objectives : On the internet, the bibliographic information service systems of the theses for the degree of Korean medicine(KMT) have been builded by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the eleven central libraries of eleven colleges of Korean medicine in Korea(KMU). Because there was a lot of information of Korean medicinal research & development(R&D) in those KMT, the KMT are most valuable in the Korean medicinal R&D.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information service systems of the theses of Korean medicine provided by those libraries.

Methods : We collected the bibliographic information of KMT on the internet in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KMU, and some references of KMT, and then made a comparison between the bibliographic information of KMT and those of KMU about the simpleness of searching and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Results : Many of the Korean medicinal information service systems of KMU are poor on the simpleness of searching and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n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the bibliographic information service systems of KMT mistakes about 20% because of misusing of a Chinese character, a rule of the initial sound of a syllable of the Korean alphabet, and an error of the term day on KMT.

Key words : bibliographic information, theses of Korean medicine, Korean medicinal information service system

I. 서론

학문 분야에서 그 분야의 논문은 지식공급원이다. 다시말해서 논문이 없다면 학문의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다¹⁾. 국내 한의학 분야의 경우 1968년도 경희대학교에서 한의학 석사가 배출된 이후 평균 매년 100편 이상의 학위논문이 제출되어 현재까지 약 4,700편 정도가 발표되었고 또한 약 30여개의 한의학 관련 학회지에서도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이들 중 한의학 학위논문(이하 학위논문)의 경우 교육과정의 결과물로도 출되었기 때문에 교육적 목적, 기초 성격의 연구 및 한의계 자체 관심에 제한된 주제 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질적인 단점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의학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직접 투자는 1994년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을 설립한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고, 또한 1997년부터는 한방치료 기술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정부가 한의학 분야에 연구개발비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의 연구 결과는 질적인 수준을 논하기 전에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학위논문보다 훨씬 미미한 수준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한의학 연구에 있어서 학위논문은 질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다른 연구자료들보다도 많이 축적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구과정에서 자료정보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오늘날 통신기술의 발달, 인터넷의 대중적 보급으로 인하여 학문분야에 있어서도 온라인상에서 연구자료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국가의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몇 개의 기관과 국가전자도서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현대에는 학문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연구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제공을 연구의 성공여부에 직결되는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의학 연구에 대한 자료정보로서의 가치가 높은 한의학 학위논문에 대한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되는 것은 한의학 R&D에 있어서 기초적인 기반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학위논문의 정보제공은 대체로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11개 한의과대학이 있는 대학교(이하 한의과대학) 부설 중앙도서관을 통하여 각기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한의학 학위논문 정보 제공서비스의 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보고가 없으며 특히 오늘날 한의학 R&D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성공을 위해서 한의학 관련 연구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한의학 연구정보 제공 서비스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이전 한의학 학위논문에 대한 연구가²⁾ 논문자체의 내용분석을 통해 연구동향 등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것에 비하여 본고에서는 현재 한의학 학위논문정보를 제공하는 11개 한의과대학의 온라인상에서의 학위논문 정보제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검색의 용이성과 검색 정보의 정확성을 중심으로 조사 연구하여, 앞으로 한의학 R&D에 적합하고 필요한 연구정보 제공서비스의 구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대상 자료, 수집 및 정리방법

1968년 경희대에서 처음으로 석사학위 논문이 제출된 이후부터 11개 한의과대학-경산, 경원, 경희(동서의학대학원 포함), 대전, 동국, 동신, 동의, 상지, 세명, 우

* 본 연구는 산업기술연구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1) 윤봉자, 지체근 공저. 의학논문작성과 문헌검색. 초판 3쇄,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3.

2) 박중운. 한의학 학위논문의 내용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원전외과학회지 Vol 7, 1993; 황순옥. 한의학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경향에 관한 고찰. 대구한의과대학 박사과정 중간발표 논문, 1987; 권영규. 한의학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경향에 관한 고찰. 대구한의과대학 박사과정 중간발표 논문, 1987.

석, 원광(한의전문대학원 포함)-에서 2001년 8월까지 제출된 석사, 박사 논문 전체를 분석 대상자료로 삼았다. 논문 목록-저자, 논문제목, 학교, 석박사 구분, 제출연도 포함-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11개 한의과대학 부설 중앙도서관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2002년 1월 21일부터 25일 사이에 수집하였다. 또한

경산대학교,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의 논문목록은 대학원에 비치된 석박사 논문목록대장을 수집하여 참고하였다. 표 1은 인터넷상에서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11개 한의과대학 부설 중앙도서관에서의 한의학 석박사 논문 목록 수집방법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³⁾.

표 1. 한의과대학 학위논문 수집방법

검 색 처	검 색 방 법
국회도서관	1) [석박사학위논문DB] 선택 → {명령어항목; 전체} 한의학 2) [석박사학위논문DB] 선택 → {전공 및 학위} 한의학 → 연도별로 검색
국립중앙도서관	{자료형태} 학위논문 + {학위논문;학과, 전공} 한의학과 + {쪽당출력건수} 100 → 출판년도를 적당하게 분류하여검색(최대검색건수가 1000건이기 때문)
경산대학교 도서관	{학위논문}선택 → {출판사} 경산대학교 혹은 대구한의과대학 → 검색
경원대학교 도서관	{출판사} 경원대학교 + {자료유형} 학위논문 + {검색건수} 전체 → 검색
경희대학교 도서관	{소장도서관} 전체 + {자료구분} 학위논문 → {출판사} 경희대학교 + {분류기호} 616 + {페이지당 출력건수} 100 → 출판년도를 적당하게 분류 검색
대전대학교 도서관	[통합학위논문DB] 선택 → {기관} 대전대학교 + {쪽당출력건수} 30 → 검색
동국대학교 도서관	경주캠퍼스도서관 → {검색어} 동국대학교 + {논문정보; 전공} 한의학 + {논문정보;학위수여기관} 동국대학교 + {자료유형} 학위논문+ {검색건수} 전체 → 연도별로 검색
동신대학교 도서관	{출판사} 동신대학교 + {자료유형} 학위논문 + {검색건수} 전체 → 검색
동의대학교 도서관	{출판사} 동의대학교 + {기관 및 자료유형} 학위논문 + {최대검색건수} 1000 + {쪽당출력건수} 30 → 출판년도를 적당하게 분류하여 검색
상지대학교 도서관	{출판사} 상지대학교 + {기관 및 자료유형} 학위논문전체 + {최대검색건수} 700 + {쪽당출력건수} 100 → 출판년도를 적당하게 분류하여 검색
세명대학교 도서관	{출판사} 세명대학교 + {검색건수} 전체 → 검색
우석대학교 도서관	{출판사} 우석대학교 + {자료유형} 논문전체 + {최대검색건수} 700 + {쪽당출력건수} 100 → 출판년도를 적당하게 분류하여 검색
원광대학교 도서관	{검색항목; 출판사명} 원광대학교 + {검색제한자; 기관및자료유형}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논문 + {최대검색건수} 500 + {Page당출력건수} 20 → ① 출판년도를 적당하게 분류하여 검색 ② {청구기호}519-519로 1991년도부터 검색

3) 표 1의 검색방법은 2002년 1월중에서 실시한 것인데, 현재 2002년 6월에 다시 확인한 결과 몇몇 한의과대학 부설 중앙도서관의 검색방법에 변화가 있었다.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각 대학교 중앙도서관 및 대학교의 학위논문 목록대장과 기타 서적⁴⁾이나 학위논문 목록을 포함하고 있는 발표된 논문 중에서⁵⁾ 발췌하여 비교·정리하여 대조군 논문목록으로 선정하였다. 각 논문목록이 자료출처에 따라 차이가 많았는데, 만일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국회도서관의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리고 대학별 검색한 논문목록을 비교군으로 삼아 대조군과의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2. 자료 분석방법

2000 MS Office Access를 이용하여 필요한 내용을 저자명순으로 분류하여 한글 97파일로 변환하여 활용하였고, 정량화된 수치를 이용하여 2000 MS Office Excel에서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림을 작성하였다.

III. 본 론

연구정보 서비스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생각되는 검색의 용이성, 내용의 정확성의 두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우선 ‘검색의 용이성’은 이용자가 원하는 학위논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검색내용의 정확성과도 연계되어 있고, ‘내용의 정확성’은 검색되어진 학위논문정보의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는 학위논문 정보내용의 정확성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1. 검색의 용이성

한의학의 학위논문 전체를 검색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표 1중 국회도서관과 같은 검색방법, 즉 학위논

문이라는 유형의 DB를 선택하고 전공 혹은 학위 검색 제한자가 있는 경우이거나 또는 경희, 원광대학교처럼 한의학의 분류기호로서 찾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 외 한의과대학 중앙도서관의 검색 제한자를 보면, 대부분 전공 혹은 학위라는 검색 제한자가 없기 때문에 검색이 용이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 세명대학교를 제외한 한의과대학의 경우는 출판사 혹은 학위수여기관이라는 검색 제한자와 함께 학위논문이라는 자료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반해 세명대학교의 경우는 학위논문이라는 자료유형을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색된 내용을 보면, 학위논문 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에서 발간된 논문집, 혹은 단행본 등이 모두 검색되어 재차 한의학 논문 인지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밖에 없다. 만일 이와 같이 검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학술정보 제공서비스의 효용성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외 검색의 용이성에 미치는 다른 요인은 최대검색건수라는 검색 제한자가 있는 경우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국, 동의, 상지, 우석, 원광대학교 등의 경우에 최대검색건수의 검색 제한자가 있는데, 1차 검색에서 적게는 300건에서 많게는 1,000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일 검색할 내용이 최대검색건수를 넘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출판 년도를 적당하게 분류하여 검색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검색의 용이성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비교군인 11개 한의과대학 중앙도서관에서 검색한 논문건수와 대조군인 한의학 논문목록상에서의 학교별 논문건수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에 제시된 비율은 원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색 내용의 정확성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에 제시된 비율이 낮다는 것은 비교군의 논문

4) 한대희. 韓國韓醫學學術總覽. 서울: 대한한의사협회, 1987.; 대전대학교대학원 한의학과. 碩博論考. 대전: 대전대학교대학원 한의학과, 1994.

5) 황순욱. 위의 글, 1987.; 권영규. 위의 글, 1987.

건수보다도 대조군의 논문건수가 적다는 의미이므로 1차 검색에서(표1 참조) 해당 학교에서의 한의학 학위논문 정보만을 완전하게 볼 수 없고 2차, 3차의 검색 혹은 다른 조사를 통해야만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100%에 가까울수록 검색의 용이한 정도가 높다는 의미이며 또한 비교군의 논문건수의 정보와 대조군의 논문건수에 대한 정보의 일치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경희, 동국대학교의 경우처럼 100%가 넘는 것은 해당 학교에 제출된 학위논문이 해당학교의

중앙도서관에서 검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므로 이는 검색의 용이한 정도뿐만이 아닌 해당 학교에 구축된 학위논문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앞으로 전문적인 한의학 정보 서비스 구축 및 한의학 정보 교류를 대비하여 학위논문의 전공 및 학위분야에 대한 검색제한자가 추가되는 것이 정보교류를 위한 효율적인 한 방법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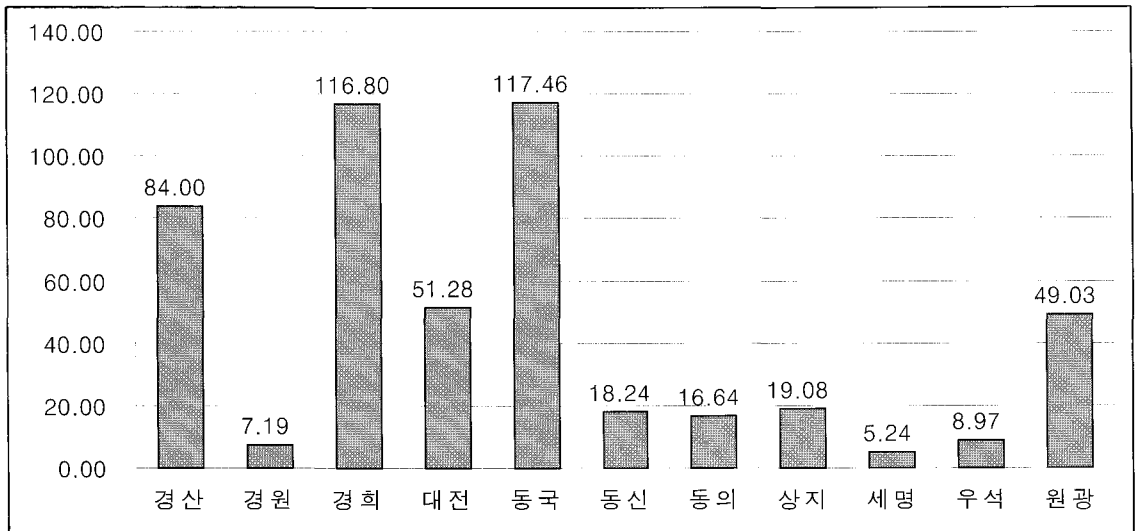


그림 2. 한의과대학교의 전체검색건수중 한의학논문수 비율(%)

2. 내용의 정확성

학위논문의 정보를 검색한 결과의 정확성은 그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낸다. 만일 쉽게 학위논문을 검색하더라도 그 내용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면 이용자들은 구태여 검색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기에 정보제공서비스에서 대단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우선 대조군과 비교군의 학위논문수를

비교하는 방법과 학위논문의 서지사항에 대해 검토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자의 경우, 내용상 동일하면 ‘동일’이라고 표기하고, 대조군에는 있고 비교군에 없으면 ‘없음’, 비교군중 일치하는 목록이 있으면 ‘중복’, 대조군에 없고 비교군에만 있으면 ‘학교도서관에만 존재’라는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동일’ 항목의 비율이 75% 미만인 경우는 경희, 대전, 동신, 세명이고 비교군에서 대조군에 있는 논문이 없는 비율이 25% 이상인 곳은

대전, 세명으로써 만일 이들 해당 학교 도서관의 정보서비스를 통해 학위논문을 검색하고자 한다면 25%는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통해야만이 찾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교군에서 중복된 내용을 가장 많이 보이는 곳이 동신인데, 이는 검색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특정한 한의학 학위논문을 검색하기 위해 한의과대학의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국회도서관 등의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후자의 방법으로 살펴보면 검색된 각각의 학위논문 서지사항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자, 제목, 연도, 학교, 석박구분 등의 서지사항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가 그림 3이다. 또한 이러한 서지사항 내용의 오류 비율을 학교별로 분석한 것이 그림 4이다. 여기서 한의과대학이 속한 대학교의 경우는 대부분 석박 구분이 없었고 상세보기 등의

항목을 통해서만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위논문을 참고자료로 이용시에 석박구분이 중요한데도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는 것은 제공하는 서비스내용의 활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오류비율이 가장 큰 서지항목은 연도이고 대학별로는 경원, 동국, 원광 등에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해당 학교에서 제출연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예를 들어 2001년 2월에 제출된 학위논문의 경우 작성연도가 2000년 후반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고 2000년에 제출된 것으로 계산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으로 높은 오류비율을 보이는 것이 바로 제목이다. 제목에서의 오류는 입력시 실수 이외에 가장 큰 문제는 한자 음독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한의학 논문의 경우, 본초명, 처방명, 경혈명 등의 한자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음독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외 가장 큰 문제인 오류는 제목이 전혀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저자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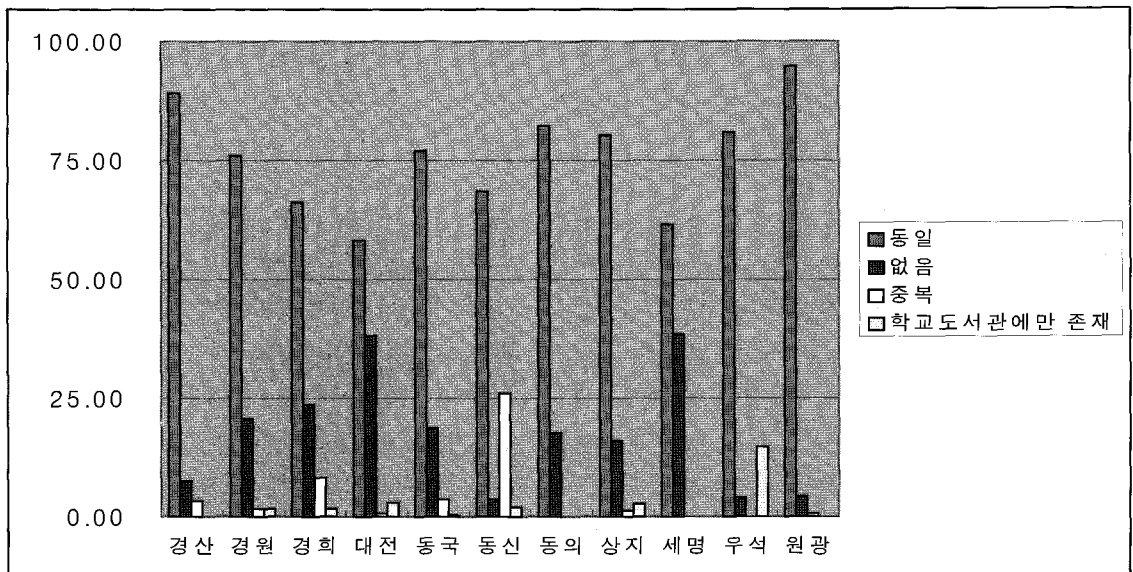


그림 3. 대학별 한의학 논문 검색건수중 오류의 비율(%)

다른 서지사항은 동일한데 유독 국회도서관에서는 논문제목이 '실험적 슬관절염의 간 기능과 연계한 치료효과에 관한 연구'라고 되어있는데 반해 학교도서관의 경우 '草龍膽水鍼에 의한 肝機能改善이 膝關節 炎症性浮腫에 미치는 影響'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같다. 또 비교군의 경우 부제를 대부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제의 경우는 본래 제목과 병행해 주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논문의 연구방향 등에 관한 것을 파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다음은 이름항목의 문제

인데, 대부분 두음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글자에서 발생한 오류들이다. 즉 이↔리, 입↔림, 렬↔열, 나↔라 등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렬로 검색하여 나오지 않았는데 ××열로 검색하자 원하던 내용이 검색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과 같다. 즉 이용자는 검색하고자 할 때 두음법칙까지도 고려하여 한번 이상의 검색을 해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한의학 학위 논문을 검색할 경우 약 20%는 학위논문 서지사항의 내용상 정확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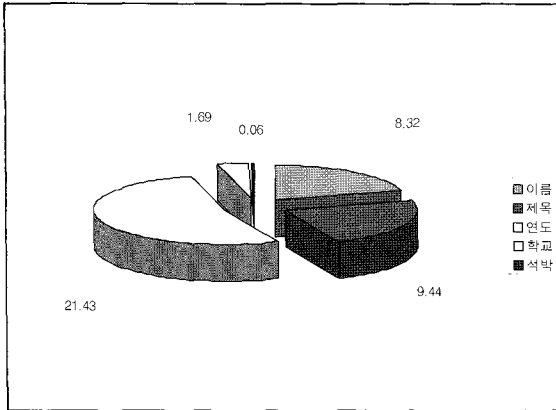


그림 4. 검색된 학위논문 서지사항의 항목별 오류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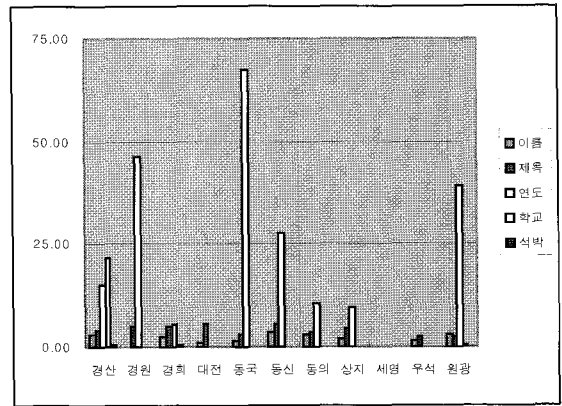


그림 5. 대학별 검색내용의 오류비율(%)

IV. 고찰 및 결론

일반적인 학위논문은 그 성격상 교육과정의 결과물로서 교육적 목적, 기초연구의 성격 및 해당 학문분야의 자체 관심에 제한된 주제 등의 범주내 연구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자료정보 가치는 적다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실제 한의학 연구개발에 있어서 한의학 학위논문은 특수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 1990년대 초반에서야 비로소 한의학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시작되었다고 볼 때 이전까지 발표된 학위논문이 약 4,700편 정도로 양적으로 많

은 축적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양적으로 가장 많이 축적된 한의학 학위논문은 성격상 연구정보로서의 질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다른 연구자료들보다도 많이 축적되어져 있는 한의학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연구개발에 대해 자료정보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오늘날 통신기술의 발달, 인터넷의 대중적 보급으로 인하여 학문분야에 있어서도 온라인상에서 연구자료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국가의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몇 개의 기관과 국가전자도서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현대에는 학문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연구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제공을 연구의 성공여부에 직결되는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의학 연구분야에 있어서도 양적 축적을 많이 이루어진 학위논문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1968년 경희대에서 처음으로 석사학위 논문이 제출된 이후부터 11개 한의과대학에 2001년 8월까지 제출된 석박사 학위논문 전체를 대상자료로 삼아 논문 정보(저자, 논문제목, 학교, 석박사 구분, 제출연도 포함)를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11개 한의과대학이 있는 대학교 부설 중앙도서관의 온라인상 서비스를 통해 학위논문 정보를 수집하고 이 수집된 자료에 대해 검색의 용이성, 내용의 정확성 측면에 대한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한의학 학위논문정보에 대한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였다.

한의과대학의 학위논문 정보서비스중 학위논문 검색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검색 제한자가 출판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소수 몇몇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기관에서는 한의학 학위논문만을 검색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또한 어떤 한의과대학에서는 그 대학의 학위논문을 검색할 경우 약 25% 정도만이 검색되었고,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한자 음독의 오류, 한글의 발음특성중 하나인 두음법칙으로 인한 오류, 논문제출연도에 대한 학교별로 다른 방식적용으로 인한 오류 등으로 검색된 학위논문 정보 중 오류가 있는 것이 약 20%여서 내용의 정확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한의학 학위논문만을 연구정보로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종합대학교로서 그 대학교에서 관리해야 할 학위논문 중 일부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학위논문을 연구정보라는 개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육과정에서 발생된 자료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한학을 보건의료체계에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전통의학에 대한 연구측면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서 한의학의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11개 한의과대학, 10,000명이 넘는 한의학 전공자, 전반적인 한의학 분야를 연구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존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실제 한의학 연구개발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의 원인은 ‘과학적’인 방법의 연구개발에 대한 배타적인 사고로 인해 근대 이후에 연구개발의 기반구조를 다지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의 기반구조라 함은 환경계-사회제도, 사회시스템, 자금-, 하드웨어-자재자원, 설비기기, 시설-, 인력, 소프트웨어-조직체계, 지원기술, 표준화기준, 정보- 등의 기술하부구조를 의미한다⁶⁾.

이중에서 특히 연구정보 분야는 실시간으로 이용자에게 연구정보를 원활히 제공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중복투자 방지, 창조적 연구의 기반제공과 인력교류의 활성화 및 연구평가 등 연구개발에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요소이다. 또한 문서화된 연구정보를 중심으로 그 정보의 기반구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한의학 연구개발의 기반구조를 구축하는데 우선적으로 한의학 연구정보의 관리 기반이 신속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의학 연구정보 기반을 구축하는데 우선적으로 학위논문 정보로부터 시작해서 이외의 문서화된 연구정보로 내용을 확충해야 한다. 이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한의과대학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학위논문정보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최신기술로서 연구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접근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의학 연구정보 기반 구축에는 단순히 논문(학위논문, 학술자료)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 특허, 기술보고서, 법규 등의 지식정보, 연구동향과 시장동향 보고서 등의 연구외적 정보도⁷⁾ 실시간으로 이용자에게 원활히 제공되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6) 이연오. 21세기 과학기술정책의 부문별 과제.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7-8.

7) 김익철. 과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초판 1쇄, 서울: 현실과 미래사, 1999: 116.

<색인어> 서지정보, 한의학, 학위논문,
한의학정보서비스시스템

참 고 문 헌

1. 윤봉자. 지체근 공저. 의학논문작성과 문헌검색. 초판 3쇄,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2. 박종운. 한의학 학위논문의 내용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원전 의사학회지 Vol 7, 1993.
3. 황순욱. 한의학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경향에 관한 고찰. 대구한외과대학 박사과정 중간발표 논문, 1987.
4. 권영규. 한의학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경향에 관한 고찰. 대구한외과대학 박사과정 중간발표 논문, 1987.
5. 한대희. 韓國韓醫學學術總覽. 서울: 대한한의사협회, 1987.
6. 대전대학교대학원 한의학과. 碩博論考. 대전: 대전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1994.
7. 이연오. 21세기 과학기술정책의 부문별 과제.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8. 김익철. 과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초판 1쇄, 서울: 현실과 미래사, 1999.